

4) 순천매산여학교

매산학교가 1915년 교명변경의 압력으로 폐교되었다가 1921년 3월 25일 복설될 때 남녀학교로 분리되어 매산여학교로 인가를 받아 동년 4월 15일 개교하였다.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선교유지단체 대표자인 미국인 선교사 맥미다가 초대 교장 겸 설립자로 취임하였으며, 그후 13년 동안 근속하였다. 보통과 4년과 고등과 2년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사랑·민족사랑·나라사랑의 정신을 배양함은 물론 새로운 지식을 넓힘으로써 여성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조선교육령에 의해 일반 여성의 심덕을 배양하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특히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수양을 중하게 여겼다. 당시 교지는 3,300평, 교사 및 부속건물은 193평이었다. 1937년에는 신사참배 거부문제로 매산학교와 함께 폐교당하였고, 해방 후 이듬해 복설되었다.

교육과정을 보면 보통과는 수신·성경·국어·선한문(鮮漢文)·수학·지리·역사·이과·도화·체조·창가·생리·영어·재봉 등으로 구성되었고, 고등과는 성경·수신·국어·선한·산술·역사·지리·이과·재봉·창가·체조·도화·영어·수공·직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염천각태랑(染川覺太郎)에 따르면 직원은 한국인 6명, 외국인 4명, 일본인 2명이었고 학생수는 초등과 113명, 중등과 12명 포함 12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¹⁾ 이 기독교계 학교에 일본인 직원이 2명 있었던 것은 사립학교에 일본인 시학관을 파견하여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을 감독케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편강의에 따르면 수업연한 및 학급수는 보통과 6년, 6학급, 250명 고등과 2년, 1학급, 70명이었고 기숙사 수용정원은 80명이었다.²⁾ 두 조사에 따르면 3년 사이에 보통과는 137명이 증가하고 고등과는 58명 증가하여, 이는 당시 민족교육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높은 향학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해 수공부를 두었고 여기에는 노동과와 직업과가 있었다. 노동과는 향학 희망자로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직업을 주어 학자금을 조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직업과는 일반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여기에는 직포과, 염색과, 재봉과, 자수과, 양잠과 등을 두었다.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920년대 전반 순천지역의 초등교육기관인 순천공립보통학교와 매산학교·매산여학교의 초등과정에 해당하는 보통과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공통과목은 수신·국어·조한·산술·역사·지리·이과·창가·체조·도화·농업으로 11개 교과이며, 매산학교는 성경·영어·식물과 주산 교과가 매산여학교는 성경·생리·영어 교과를 추가하고 있다. 두 사립학교가 공립 보통학교와

다른

1) 染川覺太郎, 앞의 책, 61쪽.

2) 片岡議, 앞의 책, 245쪽.

1930년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 현황

학 교	구 분		수업연한	학급수	학생수			직원수			
	초등과	중등과			초등과	중등과	계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계
매산학교	6	2	7	7	108	24	132	7	1	-	8
매산여학교	6	2	7	7	113	12	125	6	4	2	12
계	12	4	14	14	221	36	257	13	5	2	20

출전 : 임천각태랑, 『順天郡之部』, 『全南事情誌』下, 전라남도사정지간행회, 1930.

점은 기독교계 학교이므로 성경이 정규교과로 편성된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교육에서부터 영어를 5학년 과정에서 가르쳤다는 것이다.

1930년대 후반의 순천지역의 인문계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순천공립중학교 5년 과정 중에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3년 과정과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고등과 2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순천공립중학교와 매산학교의 경우 성경을 제외하고는 같으며, 매산여학교와는 순천공립중학교의 교과에서 성경·재봉·수공의 세 교과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기독교계 학교로서 설립목적인 종교교육 외에 학생들의 직업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